

# 장부상통의 원리를 이용한 董氏奇穴의 임상활용에 관한 文獻考察

정년식<sup>1</sup> · 임윤경<sup>1</sup>

<sup>1</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 Philological study o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ong's  
acupuncture by the principle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Neon-Sik Jeung<sup>1</sup>, Yun-Kyoung Yim<sup>1</sup>

<sup>1</sup>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 Objectives & Methods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臟腑相通) on Tong's acupuncture. We classified the frequently used Tong's acupuncture poi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 Results &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locations and indications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oints among the 740 master Tong's acupuncture points, we could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hief virtues of 66 master Tong's acupuncture points could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2. Among the relationships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the most frequently applied relationship was <Pericardium-Stomach> relationship which applied to 16 master Tong's acupuncture points, and the <Liver-Large Intestine>, <Lung-Urinary Bladder>, <Spleen-Small Intestine>, <Kidney-Triple Energizer>, and <Heart-Gall Bladder> followed.
3. Considering the body regions, 13 out of 66 master Tong's acupuncture points which the relationship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was applied to, were located at the 1-1 region, and the same number at the 8-8 region, the others were at the 7-7, 3-3, 2-2, 4-4, 10-10, 6-6, 5-5 regions in the order of the number of the points, and none at the 9-9 region.

**Key words :** Tong's acupunctur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Jangbu-sangtong)

## I. 緒 論

현재 鍼灸治療를 위해 임상에서 활용되는 選

· 교신저자: 임윤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  
학 경혈학교실, Tel. 042-280-2610, Fax. 042-280-2610,  
E-mail: docwindy@dju.ac.kr

· 접수: 2005/07/18 · 수정: 2005/09/12 · 채택: 2005/09/20

穴방법들로는 阿是穴取穴, 順經取穴, 接經取穴, 臟腑相通을 통한 取穴법 등이 있다. 실제 鍼灸臨床에서는 각 질병의 종류와 그 발병 시기에 따라 적절한 選穴法을 사용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저자 역시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하여 鍼灸治療을 시행하던 중 董氏奇穴鍼法을 응용함에 있어 臟腑相通의 원리에 따른 혈위 선택을 통한 침구치료가 기타다른 방법들보다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이 鍼法의 근본원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번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董氏鍼法은 대만 董景昌 先生이 대대로 家業으로 내려오는 秘法을 여러 弟子들에게 전수한 것이다. 현존하는 董氏鍼法에 관한 책들은 董景昌 先生께서 직접 著述한 것은 거의 없고, 1세대, 2세대의 弟子들이 敍述한 것으로, 董景昌 先生의 문하에서 직접 臨床을 통하여 傳受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國內에는 몇 년 전부터 알려졌으며, 현재 臨床에 적용되어 그 活用이 높은 鍼法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up>1)</sup>.

臟腑相通關係는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五臟穿鑿論]이라 하여 記述되어 있으며, 最近에 와서는 李正來의 醫易同源에 각 臟腑의 五行속성과 易의 관점에서 敍述한 臟腑相通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形象醫學會에서는 지산도표가 臟腑相通關係를 근거로 하여 人體를 그린 그림이라 하였으며<sup>2)</sup>, 中國에서는 洋方의 疾病治療에 臟腑相通關係를 응용하는 시도가 보고 되고 있다.

臟腑相通原理는 董氏奇穴應用에서 가장 獨創적이고 廣範圍하며 精華로운 부분에 해당한다. 비록 董師가 남긴 서적에 이 方面의 理論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相合되는 내용은 나타나 있다. 董氏奇穴의 學術思想이 臟腑相通의 原理에서 由來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疑惑과 不信이 있을 수 있지만, 董師가 이러한 原理의 發揮과 應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상당부분 表面化된 내용이 존재한다<sup>3)</sup>. 그러나 현재 臟腑相通原理와 董氏鍼法의

選穴原則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董氏奇穴 중 臟腑相通원리가 적용되는 穴을 部位와 主治에 따라 문헌 고찰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Ⅱ. 本 論

### 1. 臟腑相通

#### 1) 五臟穿鑿論과 臟腑相通에 관한 고찰

臟腑相通理論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五臟穿鑿論]은 醫學入門 臟腑 조문 중 말미와 東醫寶鑑 臟腑篇에 기술되어 있다.

##### [醫學入門]

五臟穿鑿論曰 心與膽 相通 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電光 宜補心 爲主. 肝與大腸 相通 肝病 宜疏通大腸 大腸病 宜平肝經 爲主. 脾與小腸 相通 脾病 宜瀉小腸火 小腸病 宜潤脾土 爲主. 肺與膀胱 相通 肺病 宜清利膀胱水 後用分離清濁, 膀胱病 宜清肺氣 兼用吐法 爲主. 腎與三焦 相通 腎病 宜調和三焦 三焦病 宜補腎 爲主. 胃與命門 相通津液 胃虛 宜大補右腎. 此合一之妙也.

##### [東醫寶鑑]

五藏不平 六府閉塞之所生也. 心與膽相通 心病怔忡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 肝病宜疎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 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清利膀胱水 膀胱病宜清肺氣爲主. 腎與三焦相通 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胃與命門相通 津液胃虛宜大補右腎. 此合一之妙也.

여기에서 원래 [五臟穿鑿論]은 醫學入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東醫寶鑑에 언급이 되면서 몇 가지 醫學入門과 다른 부분이 있다. 첫째, 東醫寶鑑에는 “內經曰 五藏不平 六府閉塞之所生

也”라는 부분이 앞에 더 있으며, 둘째,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清利膀胱水 膀胱病宜清肺氣爲主”라 하여 肺病에서 後用分離清濁과 膀胱病에서 兼用吐法이 入門과 대비해 빠져있으며, 셋째, 胃와 命門 全部分이 빠져있다.

東醫寶鑑의 原文 앞부분에서 黃帝內經의 “五藏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라는 文章을 引用한 까닭은 臟腑相通 關係에서 五臟의 病理的 상황들이 六腑가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각 五臟病에 해당 六腑의 閉塞과 鬱滯를 해소함으로써 治療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진 부분들 중에 肺病과 膀胱病에서 後用分離清濁과 兼用吐法은 清利膀胱水和 清肺氣爲主라는 主治療法에 속하는 보조적인 治療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빠진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胃와 命門의 關係는 일단 心包를 命門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면 논의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sup>2)</sup>.

## 2) 開闔樞와 臟腑相通에 관한 고찰

經脈의 開闔樞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sup>4)</sup>라 하여 三陰三陽이 開闔樞로써 陰陽의 설명이 가능하며 이들의 相互依存과 相互制約에 의해 經絡과 臟腑의 生理활동이 이루어짐을 보였다.

朴<sup>5)</sup>은 “人體에서 氣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闔이라 하였고,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開라 하였고, 그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조절한다는 것, 즉 문이 함부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열리고 닫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을 樞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여 開闔樞

작용은 氣의 作用임을 말하였다. 따라서 開는 氣의 運行을 闔은 氣의 貯藏을 樞는 氣의 調節작용을 의미한다.

이런 基本的인 概念을 바탕으로 六經 各자의 特徵的인 機能과 相互 連繫를 살펴보면, 開는 主表, 向外하며 疎散, 升發을 의미하는 것으로, 太陽은 一身의 表가 되며, 六經의 올타리이므로 衛氣를 主하며 開闔을 司하여 外邪를 防禦하는 作用을 하고, 太陰은 三陰의 表에 居하여 陰經의 가리개가 되어, 脾의 散精과 肺의 宣降이 開에 의존하며, 精微와 精氣를 分別하여 輸布하는 기능이 있다.

闔은 主離, 向外하며 受納, 收斂, 內藏을 의미한다. 陽明의 胃는 ‘倉廩之官, ‘水穀之海’로서 受納을 司하고 또한 陽明이 中央에 居하므로 萬物의 돌아갈 바가 되므로 陽明은 闔이 된다. 厥陰은 陰盡陽生을 의미하는 것이니 陰은 退함이 進으로 보며, 이곳에서 충만하게 저장된 血이 氣로 변하므로 厥陰은 언제나 저장의 충만을 요한다. 足厥陰肝은 주로 下焦의 陰氣를 저장하여 血脈으로 하여금 잠복되어 精을 泄치 않게 하고, 手厥陰心包는 上焦의 陰氣를 藏하여 陰血을 收斂下降케 하므로 火炎의 上炎을 방지하기 때문에 厥陰이 闔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樞는 中間에 居하며 出入의 氣를 主하는 뜻을 含有하고 있다. 少陽은 太陽, 陽明사이에 위치하며 半表半裏를 主하고 또한 樞機出入의 樞紐作用을 하므로 少陽은 樞가 된다. 手少陰은 心에 속하고 足少陰은 腎에 속한다. 心은 人身君主之官이니 神明이 出하는 바가 된다. 腎은 陰陽互根之地가 되니 精氣의 本源이 된다. 故로 少陰은 轉陽至陰의 機가 되므로 陰의 樞가 된다.<sup>6)</sup>

開闔樞는 서로 나뉜 상태가 아니라 相互協助하는 하나의 整體로, 張隱庵은 “開闔者, 如戶之扉. 樞者, 扉之轉樞也. 舍樞不能開闔, 舍開闔不能

轉樞，是以三經者不得相失也。”<sup>7)</sup>라 하여, 開闔樞가 서로 統一된 全體이며, 六經도 相互간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3) 心과 膽의 相通關係

心은 手少陰에 속하고 膽은 足少陽에 속한다. 少陰은 陰의 樞, 少陽은 陽의 樞기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素門·靈蘭秘典論><sup>4)</sup>에는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이라 하였고, <靈樞邪客篇><sup>8)</sup>에는 “心者，五臟六腑之大主，精神之所舉也。”라 하여 心主神明하고 이는 思想, 感情등의 精神活動으로 나타난다. 또 <素門·五臟生成篇><sup>4)</sup>에서 “諸血者，皆屬於心。”이라 하여 心主血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心은 神明과 陰인 血脈을 주관하여 人體의 全體의인 生命活動에 중요한 役割을 하여 少陰 樞의 機能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素門·靈蘭秘典論><sup>4)</sup>에 “膽者，中正之官，決斷出焉。”이라 하여 膽主決斷한다고 하였고, 이는 精神에 刺戟을 주는 不良한 요소들을 防禦 또는 除去하여 氣血의 正常的인 運行을 維持함으로써 장기간의 相互協助關係를 확보케 하는 作用을 한다. 이러한 膽의 決斷하는 기능은 表裏간의 氣를 조절하는 少陽이 樞기능과 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膽의 相火에 의한 決斷作用과 心의 神明의 關係를 밝혀 心膽 서로간의 밀접한 關係에 대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 4) 肝과 大腸의 相通關係

<素門·陰陽離合論><sup>4)</sup>에서는 “太陽爲開，陽明爲闔，少陽爲樞，太陰爲開，厥陰爲闔，少陰爲樞。”라 하였다. 肝은 足厥陰에 속하고 大腸은 手陽明에 속한다. 厥陰은 陰에서 闔, 陽明은 陽에서 闔의 作用을 한다. 肝은 足厥陰, 大腸은 手陽明에 속하여 肝은 陰中之陽으로 下焦에 居하며 大腸

또한 下焦에 居한다. 肝은 疏泄과 藏血을 主하니 陰이 내부로 응축되었다가, 그 응축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휘하는 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藏血의 작용은 厥陰의 闔기능에 應한다 할 수 있다.

또한 <素門·靈蘭秘典論><sup>4)</sup>에서 “大腸者，傳導之官，變化出焉。”이라 하였고 朴贊國은 “變化”는 음식물 찌꺼기, 즉 糟粕이 便이 되는 과정이다. 大腸은 위로 小腸에 연결되어, 小腸이 淸濁을 順別한 후,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와 水液을 闔門을 통해 받아들인다. 大腸은 이것을 받아들인 후 餘分의 水液을 흡수해서 便을 만들어 大腸의 말단으로 보낸다. 肛門을 통해서 便을 體外로 排泄하는 機能이 大腸의 기본적인 ‘傳化糟粕’이다”라 하였다. 이에 餘分의 水液을 吸收하여 陰血로 變化하는 것은 陽明의 闔기능에 應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肝病에 大腸을 疏通시켜 大腸의 闔기능을 回復하여 肝의 藏血기능을 回復시키고 또한 肝의 疏泄作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肝의 藏血 機能도 원활하여짐을 알 수 있다.

### 5) 脾와 小腸의 相通關係

脾는 足太陰에 속하고 小腸은 手太陽에 속한다. 太陰은 陰에서 開, 太陽은 陽에서 開기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素門·太陰陽明論><sup>4)</sup>에서는 “四肢皆稟氣於胃而不得至經”이라 하였고, <素門·奇病論><sup>4)</sup>에서는 “夫五味入口藏於胃，脾胃之行其精氣”라 하여 脾가 水穀精微를 吸收, 輸送함으로써 全身에 營養을 공급하는 機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는 脾의 運化作用으로 太陰의 開기능에 應한다고 할 수 있다. 小腸 또한 胃에서 받아들인 水穀을 다시 받아들여 淸濁을 分別하여 淸氣는 脾의 運化로 연결되므로 太陽의 開기능에 應한다고 할 수 있다.

### 6) 肺와 膀胱의 相通關係

肺는 手太陰에 속하고 膀胱은 足太陽에 속한다. 太陰은 陰에서 開, 太陽은 陽에서 開기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朴贊國은 “肺는 宣發肅降을 주관하며, 宣發은 肺氣가 上部와 外部로 宣布, 發散하는 機能活動이다. 肅降은 肺氣가 下部와 內部로 清肅, 通降하는 機能活動으로 자연계의 清氣를 받아들이고 이 清氣와 脾에서 온 津液을 下部로 보내 고루 쓰이게 하며, 대사 후의 쓸모없는 水穀을 膀胱으로 내려 보낸다.”<sup>5)</sup>고 하였다. 특히 肺의 宣發作用은 같은 太陰인 脾의 運化작용을 거친 水穀精微의 清氣를 받아 宣發하는 것으로 이는 太陰 開의 機能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膀胱은 <素問·靈蘭秘典論><sup>4)</sup>에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였고 陰인 津液을 陽의 방면으로 氣化하여 表로 行하게 하는 것은 太陽 開의 機能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肺는 水之上源이 되며 肺金과 膀胱水는 각기 上焦와 下焦에 위치한다. 上下의 氣機의 乘降出入의 관점에서 肺와 膀胱의 關係와 治療에 대해 <東醫寶鑑·內景篇> 小便門에서 언급된 것이 있다.

여기서 보면 肺와 膀胱은 上下로 뚫려있는 管의 양 끝단 上部와 下部에 위치하여 上下가 잘 疏通되기 위해서는 어느 一端이 막혀있어서는 안 되는 關係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는 肺와 膀胱의 氣機의 乘降出入의 한 觀點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肺病에 膀胱水를 清利하여 分利清濁하고 降濁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膀胱病에는 肺氣를 清하여 吐法을 겸하여 肺의 宣發, 肅降기능을 回復시켜 治療하는 것이다.

### 7) 腎과 三焦의 相通關係

腎은 足少陰에 속하고 三焦는 手少陽에 속한다. 少陰은 陰에서 樞, 少陽은 陽에서 樞기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白上龍<sup>9)</sup>은 “腎은 陽氣를 凝縮한 陰精을 潛藏함으로써 인체 陰陽 二氣의 盛衰와 五臟의 強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生殖力을 발휘할 수 있는 生氣의 源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체 陰陽 二氣의 盛衰는 腎의 虛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腎은 水火의 心腎上下로의 소통과 관련이 있으므로 腎이 少陰의 樞기능과 應함을 알 수 있다.

또 <素問·逆調論><sup>4)</sup>에 “腎者水臟 主津液”이라 하였고 <素問·靈蘭秘典論><sup>4)</sup>에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였으니 腎의 水인 津液은 上中下 三焦의 水道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三焦火의 強弱으로 水道가 조절되므로 이것은 少陽의 樞의 기능과 通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8) 胃와 命門의 相通關係

心包는 命門이고 其經은 手厥陰이라 하였으며 命門은 三焦相火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命門은 手厥陰에 속하고 胃는 足陽明에 속한다. 厥陰은 陰에서 闔, 陽明은 陽에서 闔의 기능을 하여 闔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陰이 내부로 凝縮되었다가 그 凝縮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휘하는 厥陰의 象에서 命門火는 陽으로 발휘되는 根本의인 火라고 할 수 있다. 命門火와 胃가 津液으로 相通한다함은 이 발휘된 陽이 결국 陰으로 變化하여 收斂되는 것처럼, 陽明에서 命門火가 津液으로 다시 收斂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2)</sup>.

## 2. 臟腑相通의 原理를 이용한 董氏奇穴

Table 1. Tong's acupuncture points applied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organ and bowel, classified according to the body region

部位	穴名	穴數
一一部位	大間穴 小間穴 中間穴 木穴 脾腫穴 還巢穴 眼黃穴 火膝穴 指腎穴 膽穴 心膝穴 指駟馬穴 婦科穴	13개
二二部位	重子穴 重仙穴 靈骨穴 中白穴 下白穴 土水穴 手解穴	7개
三三部位	其門穴 其角穴 其正穴 火腑海穴 肝門 穴 心門穴 心靈穴 火山穴 腰靈穴	9개
四四部位	後椎穴, 首英穴 人宗穴 天宗穴 支通 穴	5개
五五部位	火包穴	1개
六六部位	花骨四穴 水分穴	2개
七七部位	四花上穴 四花中穴 四花副穴 天皇副 穴 四肢穴 一重穴 二重穴 三重穴 金 枝穴 金輔穴 金陽穴	11개
八八部位	通天穴 通山穴 通關穴 通心穴, 通靈 穴 通腎穴 通胃穴 通背穴 上九里穴 內通關穴 內通山穴 內通天穴 二靈穴	13개
九九部位	해당 經穴이 없음	0개
十十部位	州圓穴 州昆穴 州嵩穴 腑快穴 州金穴	5개

Table 2. Classification of Tong's acupuncture points according to the organ-bowel relationship

臟腑相 通關係	穴名	穴數
肝-大腸	大間穴 中間穴 小間穴 木穴 肢駟馬 穴 靈骨 其門穴 其角穴 其正穴 火腑 海穴 人宗穴 天宗穴 腑快穴	13개
心-膽	手解穴 花骨四穴 一重穴 二重穴 三 重穴 上九里穴	6개
脾-小腸	眼黃穴 火膝穴 肝門穴 心門穴 水分 穴 天皇副穴 四肢穴 通腎穴 通胃穴, 通背穴	10개
肺-膀胱	婦科穴 重子穴 重仙穴 土水穴 金枝 穴 金輔穴 金陽穴 二靈穴 州圓穴 州 昆穴 州嵩穴 州金穴	12개
腎-三焦	還巢穴 指腎穴 中白穴 下白穴 火山 穴 腰靈穴 後椎穴 首靈穴 支通穴	9개
心包-胃	脾腫穴 膽穴 心膝穴 心靈穴 火包穴 四花上穴 四花中穴 四花副穴 通天 穴 通山穴 通關穴 通心穴 通靈穴 內 通關穴 內通山穴 內通天穴	16개

## Ⅲ. 考 察

董氏鍼法은 臨床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鍼法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 鍼法의 근본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臨床 활용시 그 탁월한 효과로 인하여 대개의 臨床家들이 맹목적으로 그 主治를 따라 鍼灸治療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董氏鍼法에서도 일반적인 選穴원칙인 循經取穴, 接經取穴, 臟腑相通원리에 따른 取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중 특히 臟腑相通원리에 따른 取穴이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臟腑相通원리에 따른 董氏鍼法의 활용은 그 治療效果가 우수하나 그에 대한 研究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常用 董氏奇穴의 部位와 그에 따른 主治를 臟腑相通關係를 適用하여 考察해 보았다.

一一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大間穴, 小間穴, 中間穴, 木穴, 脾腫穴, 還巢穴, 眼黃穴, 火膝穴, 指腎穴, 膽穴, 心膝穴, 指駟馬穴, 婦科穴등 13穴이다. 大間穴은 大腸經上에 위치하며 '蓋肝環陰器'라 하여, 肝經과 有關한 小腸氣<sup>11)</sup>, 疝氣<sup>12)</sup>를 治療하며, 또한 眼角痛을 治療하므로,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小間穴은 大腸經上에 위치하며 肝經이 지나가는 前陰부분의 疝氣, 辜丸腫通<sup>13)</sup>을 治療하므로,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中間穴은 食指의 正中央에 있어서 大腸經과 有關하며 疝氣와 肝血이 不足하거나 肝陽과 肝風이 上擾하여 나타나는 증상인 頭暈<sup>13)</sup>을 治療하므로,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木穴은 食指上에 있어 大腸經과 有關하며 清利頭目 및 開竅疎肝 하는 作用이 있어 肝火旺盛과 耳鳴, 肝經이 지나가는 兩脇의 脇下痛<sup>13)</sup> 治療에 사용되므로,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

으로 思料된다. 脾腫穴은 中指上에 위치하여 心包經上에 있으며 脾胃가 寒하거나 胃火가 盛했을 때 또는 脾腎陽이 虛하거나 胃陰不足으로 胃氣가 치밀어서 일어나는 吃逆<sup>12)</sup>을 治療하므로,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還巢穴은 三焦經上에 위치하여 理三焦補腎하는 作用이 있다. 泌尿 生殖과 관련된 腎으로 인한 月經不調와 赤白帶下 子宮痛등의 婦人科諸症에 사용하므로, ‘三焦-腎’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眼黃穴은 小腸經上에 위치하여 祛濕하며 祛黃하는 效果가 있다. 脾胃의 濕熱과 膽汁이 相結하여 肌膚로 外溢함으로서 面目이 發黃하고 몸이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sup>11)</sup> 眼黃穴이 이러한 증상을 主治하므로, 이는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火膝穴은 小指의 小腸經上에 위치하여, <靈樞·經脈篇>에 ‘肩似拔 臑似折’라 하였듯이 肩不舉와 肩臂痛을 치료한다<sup>14)</sup>. 따라서 이는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指腎穴은 無名指에 위치하여 三焦經과 有關하며 口乾등 腎虛에 의한 疾病을 治療하므로, ‘三焦-腎’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膽穴은 中指의 心包經上에 위치하며 胃不和로 인한 臥不安에<sup>3)</sup> 安神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心包-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心膝穴은 心包經上에 위치하고 胃經이 지나가는 膝部位의 膝眼, 膝關節과 密接한 關係를 보이며 膝蓋痛<sup>3)</sup>을 治療한다. 이것은 ‘心包-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指駟馬穴은 大腸經上에 위치하며 疎肝하는 效能이 있어 脇肋痛을 治療한다. 肝의 經脈이 脇肋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外邪 또는 七情에 의하여 肝이 손상 받으면 氣가 鬱滯되어 脇痛이 발생하는데<sup>11)</sup>, 本穴이 이러한 증상을 主治하므로 이는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

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婦科穴은 肺經上에 위치하며 子宮에 통한다. 子宮炎, 子宮痛, 月經不調, 經痛 등의 婦人科에 관한 疾患을 治療하므로 ‘肺-膀胱’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二二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重子穴, 重仙穴, 靈骨穴, 中白穴, 下白穴, 土水穴, 手解穴등 7穴이다. 重子穴, 重仙穴은 肺經의 범위에 위치하며 膀胱經上의 肩背痛 및 子宮病을 治療하므로 ‘肺-膀胱’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靈骨穴은 大腸經上에 위치하며 肝筋之病을 治療하고 筋骨(腰痛, 坐骨神經痛, 肘關節外踝上炎)을 치료한다. 또한 肝膽經이 耳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肝에 病이 들었을 경우 나타나는 耳鳴 耳聾<sup>13)</sup> 등과 같은 증상들을 治療한다. 이것은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中白穴, 下白穴은 三焦經의 原穴 주위에 위치하며 補腎作用이 좋다. 또한 四肢浮腫과 腎虛에 의한 腰痛, 腰痠痛, 腎虛耳鳴, 急性腎盂炎등을 治療한다. 浮腫은 張景岳이 말하길 “凡水腫等證乃肺, 脾, 腎, 三臟相干之病, 蓋水爲主陰, 其本在腎”이라 하였으며, “腰는 腎府이고 腎은 主骨生髓하므로 腎精이 虛하면 骨髓가 充滿되지 않아서 腰痛이 생긴다.”<sup>11)</sup>고 하였다. 이것은 ‘三焦-腎’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土水穴은 肺經上에 위치하며 坐骨神經痛과 膀胱經上의 腰痛을 治療한다. 이것은 ‘肺-膀胱’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手解穴은 心經上의 少府穴에 해당하며 暈鍼 또는 刺鍼後에 일어나는 麻木등을 治療하며 또한 手解一二穴을 겸하여 刺鍼하면 膽疾, 膽石症, 膽囊炎을 치료한다. 이것은 ‘心-膽’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三三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其門穴, 其角穴, 其正穴, 火腑海穴, 肝門穴, 心門穴, 心靈穴, 火山穴, 腰靈穴 등 9穴이다. 其門穴, 其角穴, 其正穴들은 大腸經上에 위치하여 婦科의 月經不調, 赤白帶下를 치료한다. 楊維傑 先生은 “婦人科 諸症은 肝經으로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月經不調<sup>11)</sup>는 ‘肝藏血’로서 肝血이 不足하게 되면 經血의 色이 옅어지고 量도 줄어들며 심할 경우에는 經閉가 되기도 한다. 또한 赤白帶下는 肝氣鬱結로 脾에 영향을 주면 衝脈, 任脈, 帶脈에 濕熱邪가 몰려서 생기는 病이다<sup>12)</sup>. 이는 모두 肝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肝-大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火腑海穴은 大腸經의 近處에 위치하며 肝虛로 인한 頭暈과 眼花<sup>13)</sup>등을 치료한다. 이것은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肝門穴은 小腸經上에 위치하며 祛濕을 할 수 있으니 ‘分水之官’이 되며 肝炎과 黃疸을 치료한다. 臨床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黃疸의 대부분은 脾胃의 濕熱이 鬱蒸되어 일어나는 것인데<sup>11)</sup> 小腸經의 原穴인 腕骨穴이 黃疸의 要穴인 것과 동일한 이치다. 즉 ‘小腸-脾’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心門穴은 小腸經上에 있으며 小腸의 合穴 부근에 위치하여 嘔吐를 치료한다. 脾陽이 虛해지면 水穀의 精微가 運化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津液이 한곳에 모이고 濕濁이 內停함으로써 飲食減少, 氣血不足, 面色萎黃하게 되며 脾氣가 不運한 즉 清濁의 升降이 失調되어 濁氣가 上壅함으로 말미암아 嘔吐하게 된다<sup>11)</sup>. 이것은 ‘小腸-脾’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心靈穴은 心包經上에 있어서 心腸疾患을 주로 치료하지만 또한 胃脘痛의 치료에도 사용한다. 胃脘痛은 脾胃가 虛寒해지거나 胃陰不足때 胃脘部가 아프고 口와 口脣이 마르며, 배고픈 감이 있으면서도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2)</sup>. 이

것은 ‘心包-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火山穴, 腰靈穴은 三焦經上에 위치하며 腎盂炎<sup>1)</sup>과 腎虛로 인한 腰痛을 치료하므로 ‘三焦-腎’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四四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後椎穴, 首英穴, 人宗穴, 天宗穴, 支通穴 등 5穴이다. 後椎穴, 首英穴들은 三焦經上에 위치하며 腎과 관련된 脊椎骨脹痛, 腎臟炎, 腰痛<sup>11)</sup>을 치료한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症狀은 腎陰虛와 腎陽虛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것은 ‘腎-三焦’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人宗穴은 大腸經의 手五里穴에 해당하는데 面黃, 脚痛을 치료한다. 黃疸에는 陰黃과 陽黃이 있는데 모두 濕이 肝에 침습하여 생기며 小便, 面, 目, 牙齒, 水足, 身體가 황금빛같이 된다<sup>13)</sup>. 이것은 ‘肝-大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天宗穴은 大腸經의 臂臑穴 下方 1寸에 위치하여 肝과 유관한 婦科陰道癢, 陰道痛<sup>13)</sup>, 赤白帶下<sup>12)</sup>등을 치료한다. 赤白帶下는 肝氣鬱結로 脾에 영향을 주면 衝脈, 任脈, 帶脈에 濕熱邪가 몰려서 생기고, 陰道痛은 前陰 疾患으로 足厥陰經脈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肝-大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支通穴은 三焦經上 消樂穴의 穴位와 近接하며 腎虛에 의한 腰酸痛<sup>11)</sup>을 치료한다. 이것은 ‘三焦-腎’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五五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火包穴 1穴이다. 火包穴은 胃經上에 위치하여 心絞痛과 眞心痛을 치료하는데, 이러한 心絞痛과 眞心痛은 心血瘀阻로 胸中の 氣血이 閉塞되고 穴脈이 阻滯되어 나타날 수 있다<sup>11)</sup>. 이것은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



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六六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花骨四穴, 水分穴 등 2穴이다. 花骨四穴은 第4,5 中足骨 사이에 위치하여 膽經上에 존재하며 目赤腫痛<sup>11)</sup>을 治療한다. “大凡眼之爲患 多生於熱 治法以清心 涼肝 調血 順氣爲血”<sup>13)</sup>이라 하였다. 이것은 ‘膽-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水分穴은 內踝尖直下 1寸으로 脾經上의 商丘穴에 해당되며, 肩痛 및 五十肩을 치료한다. 이것은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七七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四花上穴, 四花中穴, 四花副穴, 天皇副穴, 四肢穴, 一重穴, 二重穴, 三重穴, 金枝穴, 金輔穴, 金陽穴 등 11穴이다. 四花上穴, 四花中穴은 胃經上에 위치하여 調土作用이 强하고, 또한 强心作用이 있으므로 心臟病과 心跳를 治療한다. 이것은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四花副穴은 胃經의 條口穴 上方 5分에 위치하며 많이 活用하는 穴位 중 하나로서 心臟血管疾患, 心臟麻痺<sup>11)</sup>, 心臟炎을 治療한다. 이것은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天皇副穴은 天皇穴(陰陵泉) 下方에 위치하여 脾經上에 위치하고 異名으로는 腎關穴이라 하여 補腎의 要穴로서 五十肩을 치료하며, 특히 肩關節을 위로 올릴 수 없을 때 쓰인다. 이러한 것은 肩關節부위로 小腸經이 流注함으로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四肢穴은 脾經上에 위치하며 腎關穴과 配合하면 肘痛, 肩痛의 治療에 효과적이다. 이것은 小腸經이 肩部와 肘部로 流注함으로써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一重穴은 膽經의 縣鍾穴의 前方, 즉 陽明經 方向에 위치하여 膽經과 有關하며, 心臟病으로 인한 甲狀腺腫大와 扁桃腺炎을 治療한

다. 이것은 ‘膽-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二重穴, 三重穴들은 膽經上에 인접하여 膽經과 有關하며 一重穴과 비슷하게 心臟病으로 인한 甲狀腺腫大의 治療에 사용한다. 이것은 ‘膽-心’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金枝穴, 金輔穴, 金陽穴들은 膝窩橫紋下에 위치하여 膀胱經上에 위치한다. 三稜鍼으로 靑筋을 點刺하여 放血하면 肺結核을 治療하며, 肺炎와 胸痛의 治療에 사용된다. 久咳로 肺가 손상되거나 氣血이 虛해지면 肺陰이 不足하게 되어 肺燥火盛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sup>11)</sup> 肺結核과 肺炎은 肺陰虛로 인한 것이므로 ‘膀胱-肺’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八八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通天穴, 通山穴, 通關穴, 通心穴, 通靈穴, 通腎穴, 通胃穴, 通背穴, 上九里穴, 內通關穴, 內通山穴, 內通天穴, 二靈穴 등 13穴이다. 通天穴, 通山穴, 通關穴들은 모두 胃經上에 위치하며 心臟病과 心口痛, 心兩側痛, 心悸<sup>11)</sup>, 血液循環을 治療하는 要穴이다<sup>11)</sup>. 通關은 ‘內關과 통한다.’는 의미로 强心과 血液循環하는 作用에 매우 좋은 效果를 나타낸다. 通天穴은 ‘天에 통한다’는 의미로써 ‘通心한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3穴은 心血管病을 치료한다. 즉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通心穴, 通靈穴들은 胃經上에 위치하며 心臟肥大로 인한 前額頭痛, 頭暈<sup>13)</sup>, 心神不安, 心臟積水, 血管硬化의 治療에 사용한다. 이것은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通腎穴, 通胃穴, 通背穴들은 모두 脾經上에 위치하며, 보통은 補腎의 效果가 强하지만 小腸經이 지나가는 肩峰痛 治療에도 사용한다. 즉 ‘脾-小腸’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上九里穴은 膽經上에 인접해 있으며 心經之臂痛에 效果가 있다. ‘膽-心’의 臟腑相通관계

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內通關穴, 內通山穴, 內通天穴들은 通關, 通山, 通天穴의 위치에서 5分씩 內側에 위치하며 이 또한 胃經과 有關하다. 心臟衰弱과 心臟病에 같이 사용하여 治療한다. 즉 ‘胃-心包’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二靈穴은 委中穴 直上 1寸에 위치하여 膀胱經上에 있다. 肺機能不利로 인한 坐骨神經痛과 胸痛胸悶<sup>11)</sup>을 治療한다. 胸部에는 心, 肺가 있으며 胸痛은 氣滯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膀胱-肺’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九九部位에서는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이 없다.

十十部位에서 臟腑相通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董氏奇穴은 州圓穴, 州昆穴, 州崙穴, 腑快穴, 州金穴 등 5穴이다. 州圓穴은 正會穴의 外方 1.5寸에 取穴하며, 膀胱經의 通天穴에 해당한다. 州圓穴은 肺虛로 인한 氣喘<sup>11)</sup>, 肺機能不利로 인한 坐骨神經痛을 治療한다. 肺는 一身의 元氣를 總括하므로 만약 과도한 勞傷이나 久咳로 인하여 肺氣가 허약해지면 氣機가 暢達되지 못함으로서 힘없이 기침을 하고 喘息을 하게 된다. 이것은 ‘肺-膀胱’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州昆穴, 州崙穴들은 膀胱經上에 위치하며 脾塞多涕, 氣喘, 肺機能不利로 인한 坐骨神經痛과 背痛을 治療한다. 이것은 ‘肺-膀胱’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腑快穴은 大腸經의 迎香穴과 위치가 같으며 大腸經으로서 腹脹과 腹痛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肝經과 有關한 疝氣<sup>11)</sup>를 治療한다. ‘大腸-肝’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州金穴은 三焦經, 膽經, 膀胱經의 交會處에 위치하며 腰痛과 肺機能不利로 인한 坐骨神經痛을 치료한다. 이것은 ‘膀胱-肺’의 臟腑相通관계가 적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이상에서 董氏奇穴의 部位와 主治를 臟腑相通 原理에 適用시켜 본 結果 많은 부분에서 서로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董氏奇穴의 原理 중 상당수가 臟腑相通에 의해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臟腑相通관계가 董氏奇穴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結 論

總 740개의 董氏奇穴 중 常用穴을 爲主로 하여 臟腑相通原理와의 關聯性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總 66개 董氏奇穴의 部位와 主治가 臟腑相通 原理로 해석될 수 있었다.
2. 臟腑相通 關係 중 ‘心包-胃’ 相通關係가 적용되는 董氏奇穴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肝-大腸’, ‘肺-膀胱’, ‘脾-小腸’, ‘腎-三焦’, ‘心-膽’ 相通關係의 순으로 나타났다.
3. 部位別로 검토하였을 때 臟腑相通 關係가 적용되는 董氏奇穴은 一部位와 八八部位에 각각 13개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七七部位, 三三部位, 二二部位, 四四部位와 十十部位, 六六部位, 五五部位로 나타났고, 九九部位에는 適用 穴位가 없었다.

#### 參 考 文 獻

1. 최문범, 곽동욱, 이정훈. 實用董氏鍼法. 서울 : 大成醫學社. 2001 : 32-446.
2. 朴喆, 丁彰炫, 白裕相. 臟腑相通關係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7(2) : 1, 4, 6-14.
3. 楊維傑. 楊維傑 全集. 서울 : 大成醫學社. 2003 : 62-4, 87-499.

장부상통의 원리를 이용한 董氏奇穴의 임상활용에 관한 文獻考察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29, 34-9, 112, 127, 176.
5.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 19 : 5.
6. 姜正秀. 開闔樞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論文集 1996 ; 4(2) : 63-72.
7. 梁蕓通. 黃帝內經類析. 서울 : 一中社. 1986.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299 .
9. 白上龍. 臟腑와 身形의 兵機 및 病症에 대한 比較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2000 : 13(2) : 34.
10. 채우석. 董氏奇穴集成. 서울 : 一中社. 1997 : 7-13 .
11.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 新光文化社. 1996 : 139-304.
1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韓醫學大辭典. 서울 : 鼎談出版社 2001 : 647, 959, 1143, 1312.
13. 동의보감국역위원회. 東醫寶鑑. 서울 : 法仁文化社. 1999 : 490, 525, 553, 720, 803.
14. 임윤경. 大學經穴學. 대전 : 서진출판사. 2004 : 263.